

# 녹용, 한국에서만 먹는다고요?

녹용은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에서만 먹어왔던 비약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인 지금 미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통신으로 진찰도 하는 이시대 과연 서구사회에서 녹용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98년 9월 미국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북미에서도 녹용의 인기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메인주 스카보로에 사는 사슴농장 주인인 프레드 베일리씨는 발을 절었던 자신의 라브라도종 애견이 녹용 캡슐을 계속 먹고 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하고 있는 루이스 포트타씨는 녹용캡슐 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녹용캡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근육의 근력을 향상시키려는 보디빌더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찾습니다.』

한편 녹용의 효능을 연구하여 밝혀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나 뉴질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미에서도 매우 뜨겁다.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간호학 교수인 마리온 엘런 교수는 녹용이 각종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인지질, 콜라겐 등의 영양소를 갖고 있으며, 근육증강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현재 학교 축구선수들에게 녹용캡슐을 복용시키는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녹용캡슐의 FDA 승인을 얻기위해 녹용캡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녹용의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화체인 프로테오그라이칸이며 이 탄수화물은 대부분 글라이코사아미노글라이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라이코사아미노글라이칸의 대부분은 콘드로이틴 황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중의 한 연구는 하루 세번 400mg의 녹용캡슐을 90일 동안 복용하면 무릎관절염 환자의 증상이 매우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녹용의 다른 여러 효능, 면역증강, 노화방지, 근육증강, 근력강화, 성적능력 활성화 등을 하나하나 밝혀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녹용 관련 연구에 관한 한 뉴질랜드는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용은 성장발육, 면역증강, 스트레스 저하 등의 효능을 갖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와 한국의 저명한 연구기관과의 녹용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녹용은 한국에서만 사랑 받는 약재가 아니란 것이 판명되었다. 탕제건 캡슐이건 녹용은 그 효능으로 인해 한국사람, 미국사람, 유럽사람할 것 없이 세계인의 건강식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녹용신보에서>